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488

2007년 8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濯纓 金馹孫의 師友와 政治活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최 정 동

濯纓 金馹孫의 師友와 政治活動

A study on the colleagues and political activities of tacyeong kimilson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최 정 동

濯纓 金馹孫의 師友와 政治活動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최 정 동

최정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진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200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머리말.....1

Ⅱ. 김일손의 家系와 師友.....3

1. 家系와 官歷.....3

2. 師友관계.....6

1) 生六臣과의 만남.....6

2) 金宗直 門人集團의 交遊와 活動.....10

Ⅲ. 김일손의 政治活動과 士禍.....19

1. 政治活動.....20

1) 昭陵 復位에 관한 諫諍.....20

2) 水陸齋 設行 反對.....22

3) 改革案: 時弊 26개조.....25

2. 史草와 戊午士禍.....30

Ⅳ. 맺음말.....37

참고문헌.....39

ABSTRACT

A study on the colleagues and political activities of Tacyeong kimilson

jung-dong choi

Advisor : Prof. Jong-bum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acyeong Kimilson (1464-1498) took an official post when he was in late 20s and early 30s under the condition of opposition and conflicts between Hungupa and Salimpa in late 15th century. He as a representative Salimpa tried to punish wrongdoing and privileges of Hungupa in power, promote speech freedom, improve moral fiber, and record concealed and distorted history in the process of usurpation of the throne as it was for realization of Confucian ideal politics.

In the late 15th century when Kimilson lived, the Josun Dynasty entered into a stable period in politics, but groups of meritorious retainers appearing after King Sejo and Seongjong had political power dominated and managed political power and land economy without restraint and intervention by other forces.

In the period when Hungupa dominated the political power, opposite Salimpa appeared and conflicts and opposition between two parties were developed. Kimilson who appeared at this time severely criticized contradiction and irrationality raised in the politics dominated by Hungupa, and presented alternative suggestions.

In particular, Kimilson understood the past throne usurpation by king Sejo through meeting with Saengyuksin when he was a child. Based on the mind to correct the wrong past, he uncovered and recorded the truth of concealed history to recover the true history that would be concealed in memory in Sillok. Kimilson revived the true

history through meeting Sangyuksin with whom he kept company and relations with friends. It was a history of memory. He identified the truth from history collected from a great number of people and struggled to find justice of history and a new hope. As an administer and historian, he recognized reality cooly and dealt with it powerfully.

Ⅰ. 머 리 말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 그의 시대와 사회가 지니는 성격을 살피는 작업은 역사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역사가 오랜 세월동안 축척되어 온 인간의 삶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삶의 궤적을 통해 그 시대의 성격을 살필 수도 있고, 그의 시대가 지닌 성격을 통해 그의 삶의 함의를 규정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볼 濯纓 金馹孫(1464-1498)은 15세기 후반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까지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집권 훈구파의 비행과 권귀화를 바로잡고 성리학적 이상정치의 실현을 위한 언론창달과 기강 확립, 세조의 왕위찬탈과정에서의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초에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인 초기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일손이 살다간 15세기 후반은 조선왕조가 그 안정기에 접어 들어가는 시기였지만, 세조와 성종이 집권한 이후 등장한 공신집단들은 정치권력과 토지경제의 기반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타 세력의 견제와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국운영을 주도해 갔다. 세종대의 안정기를 거친 후 형성된 세조와 성종조의 공신은 조선 개국공신들과 그 성격이 달랐다. 조선의 개국공신들은 개혁의식이 분명하였고, 그 출신성분이나 경제적인 여건도 세조와 성종대의 공신들과는 다른 중소지주층과 이보다 더 열악한 처지의 공신들도 존재했다.

하지만 세조와 성종대에 등장한 5공신[1]은 그 출신성분이나 경제적 기반에서도 성향이 달랐으며, 공신책봉과정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그 조직성을 확보하고 권력집중력을 강화하여 대응세력이 없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훈구세력이었다. 훈구파가 정국을 독단하던 시기에 대립적 성향을 띤 사림파가 등장하여 양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김일손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등장하여 훈구파 주도의 정국 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모순과 비리를 통렬히 비판하고, 그에 대

1)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단종 원년에 김종서를 제거하면서 책봉한 靖難功臣, 세조의 즉위를 도모한 佐翼功臣, 이시애의 반란을 평정한 敵愾功臣, 남이의 음모를 적발해 예종을 도운 翊戴功臣, 어린 성종의 즉위를 통해 재생산된 佐理功臣을 말한다.

체되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일손은 어린 시절부터 생육신과의 만남을 통해 세조의 왕위찬탈과정을 전해 듣고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기억 속에 묻힐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기 위하여 세조의 왕위찬탈과정에서의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꺼내어 『실록』에 채록하게 된다.

김일손에 관한 기존연구는 그의 문집에 나타나 있는 그의 시와 산문을 통해 바라본 문체적 성격과 예술론 등 문학사상을 통해서 본 그의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2)]가 이루어져 왔으며, 무오사화와 관련된 정치사적 언급과 당시 사림파의 현실대응 방식 속에서 김일손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3)]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일손의 정치활동을 살펴봄에 앞서 김일손의 사우관계, 즉 어린 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생육신과의 교류를 통한 그의 역사의식 확립과정과, 김종직 문하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의 사림파내에서의 성향과 그의 정치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권경열,「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정치적 역할」,『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김광순,「탁영의 예술론과 그의 산문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경향」,『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김영숙,「탁영의 산문과 시 및 사부; 탁영'사부'의 문체적 성격과 현실인식」, 위와 같음.
김영숙,「탁영 김일손의 사의 문학적 성격」,『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97.
송재소,「탁영의 산문과 시및 사부; 탁영의 시에 대하여」,『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조문주 「탁영김일손의 기문에 대한 일고찰」,『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1998.

3) 신병주,「김일손:결코 흔들림 없는 직필정신」,『선비문화』, 남명학연구원, 2004.
윤사순,「탁영의 정치사회 사상과 도학사상; 탁영의 도학정신」,『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병휴,「탁영의 시대와 역할; 조선 초기의 사림파와 탁영의 현실 인식 및 대응」, 위와 같음.
이수건,「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도학사상; 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개혁안」, 위와 같음.

Ⅱ. 김일손의 家系와 師友

1. 家系와 官歷

김일손은 1464년 경상도 청도군 상북면 운계리(현재의 이서면 서원동)에서 태어나 1498년 3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실로 짧은 생을 살다간 인물이다.

그의 본관은 金海이고 字는 季雲이며 濯纓은 그의 號이다. 조부는 야은 길재에게서 수학한 분으로서 효성이 지극하여 문인들로부터 '節孝先生'이라 칭하여진 通德郎 克一이고 아버지는 察訪을 지낸 南溪 孟이다. 그의 백부 이하 네 숙부가 모두 영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형 駿孫과 驥孫도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듯 가문 전체가 당대에 이름을 떨쳤고, 김일손의 훗날 관직의 진출과 출세는 가문의 영광을 대표하게 된다.[4)]

김일손의 가계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사림파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세조의 등극을 불의로 간주하는 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군현향리에서 고려 말에 과거·군공·添設職 등을 통해 사족화하면서 본관을 벗어나 인근 군현이나 관직을 수행하던 지역에 정착하여 재지사족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자신의 뛰어난 행실과 학문적 소양 및 재능을 발판으로 출세하였다. 그들은 중소지주로서 생활기반은 향촌에 두어졌고 비록 한때 상경종사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처사적인 취향을 가졌다. 그들은 관직보다는 학문을 더 중시하였고, 그들의 벼슬경력도 대개 수령직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중앙정계에 투신하더라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여 권력구조에 깊이 참여하거나, 공신반열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奏議·諫諍·탄핵·時政논란 등 언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5세기 사림파가 경술과 사장을 다 같이 중시한 것은 훈구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초기 사림파는 시부와 전고에 능한 동시에 『소학』과 『가례』를 교육과 의례의 기초로 삼아 孝悌를 몸소 실천하고 淫祀와 불교를 배척하고 혼상제례를

4) 윤사순, 「탁영의 도학정신」, 『민족문화연구총서』 20,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8, 231쪽.

가례에 준거하려 하였다.[5] 김일손은 이러한 사림파의 특징을 지닌 부조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았다.

김일손의 학문은 8세 때 가정에서의『소학』공부로 출발한다. 15세 때에는 두 차례 서울의 성균관에 들어가 독서를 하였고, 행동거지가 제생의 모범이 되었다. 그 해 고려 말 성리학자인 禹倬의 후손 禹克寬의 딸과 결혼하고 鄭仲虎・李孟專・元昊・成聃壽・金詩習 등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키고 있던 절의파 인사들을 방문하면서 세조의 찬탈경위와 단종의 죽음, 소릉의 폐위에 대하여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다. 17세에 密陽에 일시 머물고 있던 김종직의 문하에 나아가 경전과 한문을 수학하였다. 이때부터 경술과 문장으로 당대를 풍미했던 김종직문하에 출입하면서 金宏弼・鄭汝昌・李深源・李穆・南孝溫・權五福・李宗準・李摠 등 도학・문장・유일・음율가들과 교유하였다. 그는 경사와 시문을 겸수했을 뿐만 아니라 산수・고적・명승지를 동료들과 찾아다니며 仁智之德과 浩然之氣를 함양하였고 또 거문고를 타고 곡조를 논하는 등 음률에도 조예가 깊고 풍류를 좋아하였다.[6]

김일손은 일찍부터 조선 초기 사림파의 전형적인 가풍과 체질을 지닌 부조의 학문과 정몽주・길재의 학통을 이은 김종직의 학맥을 동시에 전수하여 『소학』과 四書를 통한 孝悌・忠信, 格致誠正과 修齊治平의 원리, 《강목》과 《춘추》의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역사의식 및 唐宋八家의 문장과 기법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는 20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服喪을 마친 뒤 잠시 청도군의 교관으로 향교생도를 교수하다가 小・大科 시험에 응시, 小科 初試와 中・終試를 거쳐 生員壯元과 進仕次元, 곧이어 文科初 ・覆・殿시에 연속 탁월한 성적을 얻고 文科최종시에 甲科 2人으로 급제하였다. 承政院 副正字를 시작으로 출사해서 곧 승정원 正字 겸 春秋館 記事官을 역임하면서 史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24세 때에는 弘文館 正字에 나가게 되었으나 부인 禹氏의 죽음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해에 그는 벼슬을 버리고 파주에 은거하고 있던 成聃壽를 방문하고, 귀로에 金山의 鳳溪里에 머물고 있던 曺偉를 찾아 시국을 논하기도 하

5) 이수건,「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79, 21~22쪽.

6)『탁영선생연보』, 성종 24년 10월 (己酉), 본 논문에서 자료로 다룬 탁영선생연보는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20에 실린 김윤곤 선생님의 국역본 탁영선생연보를 인용한 것임.

였다. 그 이듬해에는 진주에서 남효온·홍유손·우선언 등과 함께 雲門山을 유람하였다. 26세 때는 鄭汝昌과 함께 지리산을 등반하고 「續頭流錄」을 남겼고, 李深源과는 치도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그 해 8월에는 經筵에 입시, 李胄와 더불어 史官記事의 규정에 대해 奏議하면서 종래사관의 '伏而記事'를 '坐而記事'토록 건의하여 성종의 윤허를 받았다.[7)]

성종 20년 9월 김일손은 藝文館 檢閱로 經筵의 典經과 春秋館의 記事官을 겸임하면서 「치도 12도」를 상정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시정의 폐단과 문제점, 그것에 대한 대안과 개혁안을 제시하였다.[8)] 그해 10월 李承健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파직을 당하고 제주도 金寧에 유폐되었으나 곧 방면[9)]되어 11월에 왕의 특지로 遼東質正官이 되어 명나라를 다녀왔다.

성종 21년 3월 김일손은 사관에 입직, 사초를 닦으면서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초록하였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육신 등 절의파 인사들로부터 세조의 찬탈과정과 단종의 죽음에 관한 전후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의제문』과 함께 당시 훈구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역사적 진실을 사초에 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성종 21년에는 承政院 注書 겸 檢閱에 제수되었고, 그해 5월에는 弘文館 著作·주서·검열 등의 관직을 겸직했다. 이후 성종말년까지 홍문관 博士·副修撰·修撰·副校理·校理 및 承政院 주서·검열·待敎, 成均館 典籍·直講, 司憲府 監察·持平, 進賀使書狀官, 司諫院 正言·獻納, 龍驤衛 司正, 校書館 博士, 兵曹佐郎, 吏曹佐郎·正郎, 충청도 都事, 藝文館 應敎, 議政府 檢詳, 承文院 교리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일손의 재직기간은 11년이었지만 중간의 母喪과 잠시의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7,8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관역은 실로 화려하였다.

---

7) 『성종실록』 권231, 20년 8월 27일 (壬子), "胄曰 臣非欲立也. 伏而記事, 有疑於心. 且古者左史記言, 右史記事, 古之史官必分左右明矣. 臣又聞中朝史官秉紙筆, 立帝之左右. 中朝之制旣如是, 則伏而記事, 臣竊以爲不可. ... 檢討官金詮曰 史臣伏地, 臣意以謂不可. 古史 曰 珥筆者誰? 曰史官也. 古之史官非伏也明矣. 臣意謂史官二員, 將紙筆跪于左右, 則於朝儀亦不紊也. ... 上曰 自今史官坐而記事."

8) 상기 상소문은 『성종실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9) 『탁영선생연보』, 성종 20년 10월 (丁亥).

김일손의 가계와 관역을 통해 그의 짧은 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역사의식은 전형적인 사림파의 기질을 지닌 父祖의 학문에서 그 기반을 닦았다. 그리고 생육신을 방문하면서 역사의식을 확립해 나가고,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많은 교우들과 교유하며 그의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 師友관계

1) '生六臣'과의 만남

김일손과 생육신의 만남은 기억을 복원해 내기 위한 김일손의 사관활동에 큰 의미를 지닌다. 생육신은 세조의 왕위찬탈과정에서의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가장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김일손은 생육신과 교유하며 기억 속에 묻힐 宮禁秘史를 들었으며, 생육신과 시문으로서 시국과 심회를 주고받으며 그의 역사의식이 형성되어 간다.

김일손은 일찍이 15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함께 선산에 은둔하고 있는 鄭仲虎·李孟專을 찾아뵙는데, 이맹전은 생육신의 한사람이었다. 당시 이맹전과 정중호는 김일손에게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10] 두 선생은 김일손의 그릇됨을 알고 평소 품은 생각을 가지고 지은 시 일절을 보여주었는데, 김일손이 이에 화답하는 시구가 전한다.

先生韜晦久盲聾 선생의 재학 감추시고 눈멀고 귀먹음이 오래이니
小子何知意欲同 소자 무엇을 알아 뜻을 같이 하고자 하리까
夜夜子規啼不盡 밤마다 소쩍새는 울고 울어 그지 없으니
九疑山色月明中 밝은 달빛 아래 구의산이 얼굴 붉히네

10) 『탁영선생연보』, 성종 9년 8월 (甲辰).

이맹전은 크게 칭찬하고 고체시 한편을 지어 김일손을 송별하는데 시구는 다음과 같다.

古道已云遠 옛 성현의 도리는 이미 멀어가고
但見浮雲翔 이젠 나르는 뜬 구름만 보일 뿐일세
願言篤交誼 원컨대 우리 교분 두터이 하고
善保金玉相 금옥같이 빼어난 바탕 소중히 보전하세

이 시문을 보면 김일손은 당시 단종이 내침을 당하여 영월에 유폐되어 있을 때 '子規詞'를 지어 그 所懷를 표한 바 있다. 이를 본 많은 뜻있는 선비들이 눈물을 흘리며 화답하는 '子規詞'를 지어 애도하고 흠모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김일손은 이를 은유하였다. 九疑山은 중국 湖南省 寧遠縣에 舜帝의 宗廟가 있는 산인데, 帝位를 선양한 聖君의 한분인 舜임금의 영혼이 깃든 구의산이 성낸다 함은 왕위찬탈자를 꾸짖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일손은 어린 시절부터 세조의 왕위찬탈에 부당성을 인식하였고, 그의 사림으로서의 기질을 서서히 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18세 때 南孝溫과 함께 용문산을 유람하고 原州 酒泉 山中에 은거하고 있던 元昊를 방문하게 된다.[11] 원호는 병자년에 사육신의 상왕복위를 도모한 사건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었고 김일손은 단종의 영월 유배 및 죽음에 관한 전후 사정을 듣게 된다. 이틀간 원호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 원호는 평소에 지은 바 있는 '歎世詞'를 읊어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嗟夷齊邈焉寡儀 아! 백이숙제 아득히 머니 벗할 이 드물구나
兮空摘翠於首陽 부질없이 수양산에서 푸른 것만 따는도다.
世皆忘義循祿兮 세상이 다 의리를 잃고 녹봉을 좇아도
我獨潔身而徜佯 나 홀로 깨끗이 하고 노닐리라[12]

11) 『탁영선생연보』, 성종 12년 8월 (丙午).

이 시를 통해 원호는 당시의 세조에 대한 불신과 단종에 대한 한없는 忠憤心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세조의 찬탈행위에 대한 깊은 탄식을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김일손과 남효온은 이에 화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漢之水兮滾滾 한강은 물은 도도하게 흐르고
起之山兮蒼蒼 영월의 산은 푸르고 푸르다.
鵑哭兮一聲 두견새 우는 소리에
愁人兮斷腸 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霜滿地兮喬林變色 서리가 땅에 가득하니 목의 색이 변하고
雲遮天兮白日無光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햇빛이 없다.
若有人兮頎然 이에 의표가 뛰어난 사람이
表獨立兮山之陽 산 남쪽에 홀로 서 있다.
此君一去沒身而不悔兮 아! 그대는 한번 떠나죽어도 후회하지 않으니
我欲從之而徜佯 내 그를 따르고자 하여 머뭇거린다.[13]

원호의 시에 화답하는 김일손의 모습도 세조에 대한 울분과 단종에 대한 한없는 忠憤之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일손은 24세 때 남효온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파주에 은거하고 있던 成聃壽를 방문하고 이곳의 명산을 유람하고 돌아온다. 성담수는 당시 깊숙이 은둔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문밖출입을 하지 않았다. 김일손은 남효온과 함께 성담수를 인도하여 長浦江 위에서 유람하면서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14] 당시의 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생육신의 한 사람인 성담수가 맑고 맑은 자연 속에 파묻혀 풍류를 즐기고 술을 마시며 사는 내용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김일손이 28세 때 金時習은 중흥사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김일손은 남효온과 함

12)『탁영선생연보』, 성종 12년 8월 (丙午).

13)『(국역)탁영선생문집』권6,「奉和元霧巷歎世詞」.

14)『탁영선생연보』, 성종 18년 8월 (乙酉).

께 김시습을 찾았다. 김일손은 이미 김시습이 수락산에 거처하던 시절 마음으로 벗을 맺은 사이였다. 김일손은 남효온, 김시습과 함께 백운대에 올랐고, 도봉산을 유람했다. 이렇게 남효온 김시습과 닷새 동안 지냈는데, 이때 당시 김일손은 김시습·남효온과 함께 당시의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시습은 당시 중흥사에서 뱃길을 이용하여 관동으로 돌아가려 하려던 시기였는데, 이에 김일손과 남효온은 송별시를 적었다. 다음은 그때 김일손이 지은 시[15]이다.

三月楊花洌水灣 삼월의 열수 굽이 양화도
片雲孤鶴送君還 조각구름 외론 학처럼 떠나는 그대를 전송하오
芝蘭風入秋江室 난초 향기는 바람결에 추강방으로 들고
薇蕨春生雪嶽山 고사리는 봄 온 설악산에 자란다오.
五歲神童猶靖節 오세 신동은 도정절과 같아
百年淸士可廉頑 맑은풍모는 백 년 뒤 완악한자를 염치있게 바꾸리.
聯筇他日金剛去 언젠가 나란히 지팡이 짚고 금강산 찾아가
鳳頂源頭叩石關 봉정 원두에 돌문을 두드리리.

"고사리가 봄 온 설악산에 자라난다."고 했고, "오세신동이 도정절(도연명)과 같아, 맑은 풍모는 백년 뒤 완악한 자를 염치 있게 바꾸리."라고 했으니 김일손은 김시습을 백이와 같은 맑고 탐욕이 없는 성인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손은 김시습·남효온과 회동한 그해 가을, 소릉 복위 상소를 올린다. 김일손이 소릉 복위 상소를 처음 올린 것이 바로 김시습을 만난 뒤의 일이라는 것은 그의 상소가 김시습과의 만남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16]

이렇게 김일손은 역시 생육신의 한 사람이자 문인인 남효온과 함께 세조의 왕위 찬탈에 의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고 있던 생육신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역사의식을 확립해 나가며,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억 속에 묻힐 역사를 꺼내어 훈구파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의 역사를 『실록』에 채록하여 역사의 진실을

15) 『(국역)탁영선생문집』 권6, 「同南伯恭送金悅卿歸雪嶽」.
16)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560~565쪽.

복원해 내고자 하였다.

2) 金宗直 門人集團의 交遊와 活動

金宗直(1431～1492)은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金叔滋에게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는『童蒙須知』에서 시작하여 사서오경을 거쳐 『통감』과 사서・제자백가서에 이르기까지 건너뛰지 않고 독서하는 순서에 따라 조직적으로 수업하였다. 이런 가학의 교육방법을 그는 후일 그의 문인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었다.

그가 문인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 34세 때인 사헌부 감찰 재직 시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때는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가 41세 되던 해에 그는 처음으로 외직인 함양군수로 보임되어 2년간 그곳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여가에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김굉필과 정여창을 대면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전개한 두 번째 기회는 47세에 선산부사로 나가 있을 때였다. 그 해 수개월 간 그는 金宏弼・李承彦・李鐵均・郭承華・周允昌 등을 대상으로 墳典을 토론하고 그에 관해 問辯하였다. 그리고 51세 때 母夫人 喪中에 楊浚・楊沈 형제가 洪裕孫을 따라 먼 거리에서 와서 수업하였고, 安遇는 草溪에서 만 2년 동안 수업하였다. 김일손이 처음 김종직 문하에 들어간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그리고 성종 16년 55세 되던 해에 병으로 사직하고 밀양에 낙향해 있을 때 그는 朱子學規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친다. 그 뒤 60세 되던 해에 밀양으로 완전히 낙향하여 정여창의 보좌를 받으면서 程朱之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김종직은 상경종사하던 젊은 시절부터 낙향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스로의 학문연찬과 문인의 교회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림파라는 역사적 존재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17]

---

17) 이병휴,『조선전기 기호사림파연구』, 일조각, 1984, 10~23쪽.

사림파의 학문적 성향은 그들의 현실대응 의식과 자세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사장학 보다는 경학을 더 중시하였다. 그러나 김종직의 학문적 성향은 양면성이 미분화된 채 나타난다. 정국 운영을 장악한 훈구파 일색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그는 성리학의 학문적 세계와 윤리관·가치관을 보급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과 함께 현실에 안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지향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대응 방식은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러한 김종직의 처신은 그의 문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양면성은 제자들에게 있어 두 갈래로 분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8]

곧 그 하나는 경학에 대한 그의 관심을 확대재생산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사장학적 성향을 집약적으로 물려받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金宏弼·鄭汝昌 등을 둘 수 있고, 후자의 경우로는 南孝溫·金馹孫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학문적인 면과 현실대응 면에서 두 갈래로 나누고 있지만, 당시의 훈구파 주도의 정국 하에서 구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향촌질서 수립에 관심을 가진 점은 공통된 것이었다. 김일손은 바로 이러한 김종직의 문하에 있으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강력한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일손은 17세에 김종직의 문하에 있으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된다. 그의 교우들은 김일손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김일손은 일찍이 교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내 성질이 본디 남을 인정하는 일이 적었다. 17세 때 처음으로 점필재 문하에 유학하여, 열세사람과 신교를 나누었으니, 도학에는 김굉필·정여창·이심원이요, 문장에는 강혼·이주·이원·이목이요, 유일에는 남효온·신영희· 안응세·홍유손이요, 음률에는 이총·이정은 이다.[19]

김일손은 당시에 김종직의 문하에 있으면서 도학과 문장, 유일, 음율에 있어 13

18) 이병휴,「15세기 후반16세기초의 사회변동과 김종직 및 그 문인의 대응」,『역사교육논집』35, 역사교육학회, 2005, 233~245쪽.

19)『탁영선생연보』, 성종 11년 9월 (庚子).

인과 교우관계를 맺고 그들과 학문하는 방법을 깨쳐나갔다.

김종직의 학문성향과 문인들의 갈래를 정리하면서 김일손과 남효온은 보다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전개한 인물들이었다. 남효온(1454~1492)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조선 개국공신 남재의 5대손으로 성품이 호방하고 강직하며 지조와 절개가 있었다. 남효온은 어려서 사육신의 충정을 보고 의분을 새기었으며 김시습을 사범으로 삼아 세속에 괘념치 않았다. 김일손과 남효온은 1481년 정신적인 교유관계를 맺고 용문산을 유람하였으며, 명산을 두루 다니며 기행록을 남겼다. 김시습·원호·성담수 등 생육신과의 만남 때도 남효온과 함께 동행 하였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문하에서도 남효온과 가장 가깝게 교유하며 역사의식을 확립해 나갔다.

남효온은 세속을 벗어난 청아한 풍속과 압도할 만한 호방한 그의 기상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러한 남효온이 김일손과 신교를 맺은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종직의 문인들 중에서 남효온과 김일손은 그 현실대응 방식이 매우 과격하고 적극적으로 표출되어 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릉 복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성종 9년 혼인을 바르게 할 것, 수령의 선발, 인재등용, 내수사의 폐지, 학교부흥, 풍속교정 등 여러 개혁안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릉 복위를 논급하였는데, 任士洪은 이를 '신하된 자가 논의할 수 없는 것'[20]이라 하였고, 서거정도 국가의 일은 대간과 조사가 논의하면 될 것인데 남효온은 일개 유생으로서 감히 발언한 것은 명망을 낚아 관직에 진출하려는 행위라 하여 단호히 배격한 바 있다.

남효온의 뒤를 이어 김일손도 소릉 복위 상소를 꾸준히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소릉 복위에 관한 상소는 세조의 즉위과정에서 자행된 반인륜적 행위와 그에 편승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훈구파의 비윤리적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김일손과 남효온의 이러한 상소는 그들이 함께 명산을 유람하며 생육신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역사의식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김일손은 道學으로 김굉필과 정여창을 들었다. 金宏弼

20) 『성종실록』 권91, 9년 4월 15일 (丙午), "都承旨任士洪啓曰 追復昭陵, 此臣子所不得議, 今孝溫擅議之, 亦不可也."

(1454~1504)은 '東方五賢'이라 불린 다섯 사람의 조선전기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소학을 주축으로 한 수기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다.

김굉필은 주로 선조가 사셨던 玄風과 처가인 陜川 야로현 및 처외가인 성주 가천지역을 내왕하면서 김일손을 비롯한 영남의 여러 선비들과 만났고 또 점필재의 같은 문인으로서 정분을 깊이 나누게 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김굉필을 가리켜 "성리학에만 전일하게 마음을 집중하며"[21]"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맑으면서도 좁지 않고 조화로우면서도 시속에 흐르지 않는 지경에 거의 도달했다"[22]고 하여 그의 성리학 공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학』공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스승인 김종직에게 『소학』을 배운 이후로 손에서 그 책을 놓아 본적이 없고 스스로 '소학동자'로 자처하면서 30이 되어서야 다른 책을 읽었다고 한다.

김굉필은 또한 후진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아 수많은 제자를 거느렸으며, 이 때문에 그를 비방하는 논의가 비등하였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교육에 더욱 힘을 쏟았다고 한다. 물론 그는 후진 교육에 있어서도 『소학』공부를 중요시하였다.[23]그리고 그는 비록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급급하지 않았는데, 41세가 돼서야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김굉필과 김종직의 현실대응 방식이다. 김종직은 사장학과 경학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그 양면에서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현실대응방식과 결합하면서 당대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절하로 작용되게 되는데, 그의 학문이 후진을 인도한 공에 있어서 단지 시문에 의해 한 것이지 도학으로써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굉필과 같은 문인들은 김종직의 현실적인 존재양태 사이에서 일정

---

21)『성종실록』권290, 25년 5월 20일 (丁未), "慶尙道觀察使李克均擧隱逸之 士以啓曰 生員金宏弼, 專精理學, 操履居正, 不曲爲求擧."

22)『연산군일기』권11, 1년 12월 28일 (丁丑), "宏弼識見宏博, 志操貞固, 深探性理之學, 其於淸而 不隘, 和而不流, 或庶幾焉."

23) 김훈식,「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동방학지』133, 연세대학교국학연구소, 2006, 39~40쪽.

한 간극을 형성하게 되었고, 김굉필은 당시의 엄격한 사제윤리에도 불구하고 김종직과 갈라서게 되는 것이다. 김굉필은 성종 17년 당시 이조참판으로 있던 스승 김종직이 국사에 대해 별다른 건의를 하지 않자 이에 풍자의 시를 올림으로써 그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道在冬裘夏飮氷 도란 겨울에 갓옷을 입고 여름에는 얼음을 마시는 것이니
霄行潦止豈全能 날이 개면 나다니고, 장마 지면 멈추는 것이 어찌 온전하다 하겠습니까.
蘭如從俗終當變 난초가 세속을 따르면 마침내 변하고 마는 것이니
誰信牛耕馬可乘 소는 밭 갈고 말은 사람이 타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24]

위의 시는 김굉필이 김종직에게 정치의 시비를 논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풍자하여 올린 시이다. 당시의 현실순응적인 김종직의 처신에 일침을 논 것이다.

스승의 이런 일면과는 달리, 김굉필은 언제나 경학을 최우위에 놓고 그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 차별성은 김종직이 많은 시문을 남긴데 반해 김굉필은 오로지 성리학적 윤리를 체득하는 일과 성리학에 몰두하는 일로 일관한데에 드러난다.

하지만 김일손은 김굉필의 이러한 스승과의 출처와 시정개혁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데 반해 스승 김종직을 시종일관 존봉하였다. 김일손은 김굉필의 스승에 대한 풍자시에 운을 붙인다.

夏蟲那可語寒氷 여름 벌레가 어찌 차가운 얼음을 말할 수 있을까?
大聖猶謙一末能 공자도 한 가지도 능한 것이 없다고 겸손하였다.
欲識古人無犯隱 옛사람이 스승을 犯하거나 숨김이 없었음을 알려거든
莫將牛馬說耕乘 우마를 가지고 耕하고 乘하는것을 말하지 말라.
人於處世淵戒氷 사람의 처세는 깊은 못에 얼음 밟듯 조심하라고 하였지만

24) 『(국역)탁영선생문집』 권6.「附大猷韻」.

用舍行藏久鮮能 오랫동안 그 用舍行藏을 잘한 사람이 적었다.
縱使幽蘭蓬艾混 비록 그윽한 난초를 다복 쑥과 섞어 놓았다 하더라도
芳香肯披臭薝乘 그 향기가 어찌 나쁜 냄새와 섞일 수 있겠는가?[25]

김굉필의 시에 운을 붙인 김일손의 시를 통해 스승에 대한 존봉심을 알 수가 있다. 그의 학문하는 자세도 김종직과 많이 닮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가야산을 유람하며 釣賢堂에 머물면서 춘추를 강론하는 등 도의를 이어갔다.[26]

김굉필과 더불어 '도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鄭汝昌(1450-1504)은 21세 때 李寬義에게 나아가 수학하였으며 이후 23세 때 평생의 도우인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의 문하에 나아가 문인이 되었다. 정여창은 교유하기를 즐겨하지 않아 벗들이 그리 많지 않다. 김종직 문하에서도 김굉필·김일손·남효온 등이 가장 절친한 관계였다. 김굉필은 평생토록 학문의 반려자였으며, 김일손이 14세 연하였지만 평소 망년지교를 나누었다. 이 밖에도 유호인·윤호손 등과도 마음을 열고 학문을 강론하기도 했다.[27]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여창은 김종직 문인들 가운데 단연 도학으로 저명하였다. 정여창은 시문 중심의 학문 경향을 배척하여 마지않았는데, 남효온은 그의 이러한 학문 경향을 퍽 못마땅하게 여겼다. 일찍이 김종직은 경술과 문장이 두 갈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道文一致'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載道之器로서의 문장이 아닌 경술·도학에 종속되지 않는 문장의 영역과 그 가치·공효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정여창은 스승의 이러한 詩文觀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설을 중시하는 남효온이 이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여창이 시를 비롯한 문학자체를 통째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종래의 사장학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정감에 호소하는 시가 마음을 다스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었다. 여기서도 도학자로서의 정여창

25)『(국역)탁영선생문집』권6. 「次金大猷上畢齋先生韻」.

26)『탁영선생연보』, 성종 21년 5월 (丙子).

27) 최영성,「일두 정여창의 생애와 학문역정 -제가기술을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제 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14~15쪽.

의 면모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정여창은 젊어서부터 천성이 매이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독서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곳이 조용한 산사라고 생각되었기 지리산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김일손은 1488년 정여창을 방문한다.

김일손은 정여창과 도의의 교분을 이어갔으며, 당시에 방문하여 태학을 익히고 돌아왔다. 김일손은 당시 김굉필에게 보내는 서신에 정여창과 강학한 것을 말하고 칭찬하기를 "학문이 점진적으로 고루 충실하게 성취되어 가는 사람은 우리 무리들 중 이 한 사람 뿐이다"라고 하였다.[28] 이를 보건대 김일손과 정여창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함이 절실하였다.

김일손은 1489년 16일 동안 정여창과 함께 두류산을 유람한 뒤 귀로에 배를 타고 岳陽湖로 오면서 시를 한편 짓는데 다음과 같다.

> 風浦泛泛弄輕柔 바람 부들 둥둥 떠서 가볍게 하늘거리는데
> 四月花開麥已秋 사월의 화개에는 보리가 이미 가을이네.
> 看盡頭流千萬疊 두류산의 만학천봉 남김없이 다 둘러보고
> 孤舟又下大江流 외로운 배는 다시 큰 강을 따라 내려오네.[29]

가슴속이 시원하고 깨끗하며 한 점의 속기가 없어 정여창의 사람됨과 기상을 보여준다는 평이 있으며, 두 사람의 도에 임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친분은 늦게 과거에 오른 정여창을 김일손이 1490년에 천거하는 상소까지 올리게 되는 것에도 알 수가 있다.[30]

이 글에서 스승인 김종직과 문인인 남효온·김굉필·정여창과의 관계를 통해서 김일손의 학문하는 자세와 함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과 성향을 살펴보았다. 당시 사림들의 현실대응방식을 통해 수기와 치인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이야기 했으나,

---

28) 『탁영선생연보』, 성종 19년 3월 (戊申).

29) 『탁영선생연보』, 성종 20년 4월 (丁巳).

30) 『탁영선생연보』, 성종 21년 10월 (戊寅).

새로운 군신관계 속에서 등장한 사림파는 모두가 수기와 치인지학의 공통성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통성을 기반으로 당시 훈구파 주도하의 정국 하에서 정치세력과 정치구조의 양면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사림은 정치세력의 교체를 위해 노력하였다. 비리를 저지르는 훈구세력을 비판하면서 이들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인사기준으로 덕을 제시하고 그에 입각한 인사방법으로 천거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림은 천거제를 통해서 지방의 사족을 중앙정치에 등장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공론정치를 확대하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림을 여론형성층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였다.

더불어 사림은 권력구조 개편에도 노력하였다. 그들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훈구파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려 하였고, 특히 성종후반에는 홍문관을 언론기관화하면서 언관권을 형성하여 권력구조의 분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31]

이러한 당시 사림파의 정치세력과 정치구조의 개혁 추진에 앞장서서 언론활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김일손이며, 다음 장에서 전개할 김일손의 정치활동에는 그의 개혁의 성과물들이 잘 표출되어 있다.

31) 최이돈,「성종대 사림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정치 모색」,『한국문화』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6, 131~132쪽.

Ⅲ. 김일손의 政治活動과 士禍

조선시대의 정치·사회적 지배세력인 사대부는 15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편의상 사림·훈구파로 구분한다. 그러나 모두 수기·치인지학인 경술·사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학을 이수하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詩賦詞章에 능한 자, 무예와 전략에 능한 자, 도학과 예학에 일가견을 가진 자, 경세술과 행정실무에 능한 자에 따라 文·武·學·吏의 넷으로 나눌 수 있다. 김일손은 여기에서 文과 經史 및 吏才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사대부라 하더라도 전공과 기능에 따라 책임과 평가가 다르다.

김일손의 정치·사회사상은 그의 성장과정과 시대환경 및 그가 관심을 갖고 시문을 짓거나 연찬한 학문에 의해 도출되고 또 그러한 시·공간의 사회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표현되었다. 그 역시 15세기 후반 성리학에 훈도된 사림파의 일원 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사림들이 갖고 있던 의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일손의 정치·사회사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가계와 생육신과의 만남을 통한 역사의식확립, 사림파의 개혁의지를 이어 집권세력인 훈구파에 대항해서 성리학적 윤리·질서를 확립하고 사림주도형으로 향촌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세조체제를 개혁하고, 훈구파의 권귀화와 전횡을 막고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개혁정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김일손의 정치·사회사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대부들의 성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후반 사대부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세조의 왕위찬탈을 도운 훈구파로 그들은 기존의 세조체제를 옹호,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집권태세를 지속시켜 나가려 하였다.

둘째는 세조시기에 출사하고 성종시기에 등용된 사림파의 노장층으로 이들은 세조의 찬탈행위를 내심 불의로 간주하면서도 세조체제를 인정하고 훈구파와 공존하면서 점진적, 온건적인 개혁노선을 지향하는 부류이다. 김종직·홍귀달·조위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셋째는 대개 김종직 문인들로서 성종시기에 처음 출사하여 성종을 '吾君'으로 표현하고 기존의 세조체제에 도전하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추진하려다 결국 무오사화로 인해 직접 화를 당한 김일손·권오복·이목·이주 등 신진기예한 소장사림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32]

김일손의 정치·사회사상은 그의 역사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개혁안도 그의 정치·사회사상에 바탕 하여 도출되었다. 그의 정치활동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昭陵 復位에 관한 疏와 水陸齋의 設行에 반대하는 疏이며 그가 연산군 원년에 제시한 時弊 26개조에는 그의 정치·사회개혁안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1. 政治活動

1) 昭陵 復位에 관한 諫諍

김일손의 정치활동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昭陵 復位에 관한 疏이다. 소릉은 세조대에 묘가 파헤쳐 지고 종묘에서 신주가 철거되는 변을 당하였다. 문종의 비 顯德王后의 陵으로 현덕왕후는 단종의 母后로서 花山府院君 權專의 딸인데, 1437년 세자빈이 되었고, 1441년 단종을 낳고는 3일 뒤에 승하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한 뒤 현덕왕후에 追崇되어 능호를 소릉이라고 했다.

그러나 1456년에 그녀의 어머니 阿只와 동생 權自愼이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사형당하면서 1457년 아버지 權專이 追廢되어 서민이 되었고, 아들 단종은 君으로 강봉되어 폐위 당했다. 이제 종묘에서 신주가 철거되고 평민의 예로 개장되는 비운을 겪었다.

소릉 복위에 관한 논의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이 먼저 제기를 하였는데, 그는 성종 9년에 8개조에 걸친 時務策을 상소하면서 소릉의 복구를 주장하여 조야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소릉복위가 논의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산군대로 이어진 것이었다. 남효온이 상소를 올린 성종대는 아직 사림파의 진출이 미약하고, 세조대

32) 이수건,「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개혁안」,『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174~177쪽.

훈신들이 조정에 포진해 있어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일손이 처음 소릉 복위에 관한 상소를 올린 것은 남효온과 함께 김시습을 방문한 다음 1491년 가을에 이루어진다. 김일손의 상소에 성종은 다른 사람들이 말 할 수 없는 바를 능히 말하다 하며 충경함이 가득하다 하였으나, 이 일은 극히 중차대한 일이라 하여 돌아가서 기다리라하였다. 결국 이 사안은 잠잠해지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33]

김일손은 연산군 원년 대부분 꺼리던 소릉 복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 26조목에서 소릉복구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 소릉을 회복하소서....(중략) 예로부터 제왕들의 사당에는 혼자 있는 신주가 없는데 문종의 사당에만은 혼자 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구제할 책략을 품고 여러 사람들의 희망에 몰리여 부득불 임금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이었고 소릉을 폐위시킨 것은 세조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단종의 어머니 권씨는 이미 죽었으니 그가 노산군을 복위시키려는 음모에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만일 어머니 때문이라면 당시 주모자들이 왜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은 용서했겠습니까. 그것은 딸이 바깥일에 관계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으니 여기서 세조의 인정을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신은 바라건대 전하가 소릉을 회복시키고 나무라고 방목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거상기간이 끝나면 신주를 옮겨 문종의 사당에 함께 모신다면 온 나라의 윤리를 위하여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34]

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종의 비 권씨는 단종을 낳고 곧 죽었는데도 일시에 追廢되어 문종이 종묘에 獨享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配尊하는 神主가 없으므로 소릉과 廟主를 복위해서 문종에 배향하고 아울러 예관에서 合享하기 위한 의식 절차를 작성하도록 해서 시행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간원의 헌의에 대해 예조에서는 문종의 묘가 독주이나 소릉은 조종조에서

---

33) 『탁영선생연보』, 성종 22년 10월 (庚申).

34) 『연산군일기』 권5, 1년 5월 28일 (庚戌), "復昭陵. ... 自古帝王, 廟無 獨主, 文廟則獨一. 光陵蘊 濟世之略, 迫於群情, 不得不受禪, 爲 宗社計也. 其廢昭陵, 恐非光陵本意也. 臣聞文廟在東宮, 昭陵已殂. 其不預復魯山之謀, 明矣. 若以母故, 則當時首謀諸人, 誅其子, 而原其女, 以其女無外事也, 足見光陵之仁. ... 臣願殿下, 復昭陵, 禁樵牧, 而喪畢祧遷, 仍附其主, 一國綱常, 幸甚."

폐릉한 지 오래되어 경솔하게 다시 세우기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행하고자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반대했다.[35]소릉 복위에 관한 건의는 세조의 즉위자체와 그로 인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훈구세력의 존재 명분을 간접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김일손의 소릉 복위에 관한 상소는 간신들의 모함이나 왕의 오해에 의한 처벌 등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것을 감수할 각오로 취한 행동이었다. 형식적으로 소를 올린 것이 아니라, 성종 22년부터 연산군 2년까지 올린 지속적인 상소로서 그가 정의라고 판단했던 조치를 자기희생을 각오하면서 성취하고자 했던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관이었던 그가 만일의 경우 화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직필로서 감행한 『조의제문』의 사초화와 맥락을 같이 한 것이었다.

2) 水陸齋 設行 反對

김일손은 소릉 복위에 관한 소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그와 더불어 실현하고자 했던 또 하나가 수륙재 설행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특히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비록 배불정책에 의하여 불교의식이 유교의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津寬寺를 국행수륙재를 여는 寺社로 지정하여 크게 齋儀를 행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태조 4년에는 고려 왕씨의 영혼을 달래는 수륙재도 행하였다.

그 이후 배불정책에 따른 불교의식의 유교화 정책은 수륙재를 국행으로 거행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전통으로 계속되어 온 수륙재는 쉽게 폐지되지 않고, 1515년 중종 10년에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금지될 때까지 큰 변동 없이 계속된다.

1494년 연산군 즉위년에 김일손은 수륙재를 금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성종의 상을 당해 대비가 수륙재를 설재하자,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파들은 숭유배불론의 입장에

35) 『연산군일기』 권11, 1년 12월 30일 (己卯), "我朝文宗獨享於廟, 於義 未安. 但昭陵祖宗廢之已久, 輕易復立爲難, 亦不可擧行. 況祖宗朝未行之事, 一朝論建未便."

서 이를 반대했다. 당시 대간으로 재임하던 김일손은 수륙재 설행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음은 김일손이 대간으로 있으면서 올린 내용의 일부이다.

1. 獻納 김일손이 아뢰기를 "어제 수륙재를 지내는 것이 불가한 일임을 아뢰었는데, 하교하시기를 , '兩殿께 아뢰어보겠다' 하셨습니다. 신들도 전하께서 양전께 끌리는 것이요 본의가 아니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어버이의 영을 쫓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성종께서도 度僧하는 법을 파하려 하였는데 두 대비께서 말리자, 성종께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억지로라도 慈殿의 뜻을 쫓아야 한다고 하는 이도 있었으나, 성종께서 쫓지 않고 끝내 파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파할 것을 명하시고 곧 파하지 말하고 명하시니, 성종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에 신의를 잃을까 염려됩니다."[36]

2. 馹孫이 아뢰기를 태조께서 천명을 받드신 후로 태종 때에 이르기까지 전혀 불도를 숭상하지 않고 일체 통렬히 금지하고 사찰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세종께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재를 지낸 일이 없었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 성종께서도 불도를 좋아하지 않으시어, 여승들의 집이 도성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특별히 도승의 법을 파하고, 몸소 행하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26년간의 재를 지낸 일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있게 되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朝士들은 모두 성종조의 신하이니, 모두 성종께서 불도를 숭상하지 않으셨음을 아는데 승하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곧 평일에 좋아하시지 않던 일을 거행하면서 부처 앞에 절하게 하니, 통분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37]

이상과 같은 김일손의 주장은 그의 불교에 대한 배불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36) 『연산군일기』 권10, 1년 11月 12일 (辛卯), "獻納 金馹孫 啓曰 昨啓 設齋不可事 敎曰當啓 兩殿 臣等亦知殿下牽於兩殿 而非本意也 然從親之令 非爲孝也 成宗 欲罷度僧之法 兩大妃止之 成宗議於大臣 或有言勉從慈旨者 成宗不從而竟罷之 今旣命罷之 旋命勿罷 非徒有遠成宗之志 恐亦失信於國."

37) 『연산군일기』 권10, 同上條, "馹孫曰. ... 太祖受命以來, 至于太宗, 專不崇信, 一切痛禁, 盡毁寺刹, 而世宗知其志, 故亦未嘗設齋. 今我成宗亦不喜佛, 撤去尼舍之在城內者, 特罷度僧之法, 躬行身率, 以化其民. 故二十六年之間, 無有設齋者. 今者遽有如此之擧, 不勝缺望. 今之朝士皆成宗朝臣也. 皆知成宗不崇信, 而昇遐未幾, 卽以平日所不喜之事擧行, 而使之屈拜於佛, 人莫不痛憤."

수 있으며 다시 사림들의 불교에 대한 입장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일손은 성종시기의 불교정책을 모범으로 삼아, 연산군에게도 강력하게 배불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의 국왕은 유교국가의 국왕으로서 취해야 할 합당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전래의 여러 종교에 대하여 관대할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해, 김일손과 같은 대간들은 공도를 내세워 성리학적 이념과 이상만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연산군은 兩殿 등 궁중의 내명부 내지 훈구세력의 처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서 있었던 데 비해,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파는 성리학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리학적 전례를 실천하는 일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적 원리·원칙에 보다 철저하고자 했던 사림파내에서도 김일손은 그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그는 비록 벌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군주를 올바른 도리로 이끌어 성리학적 도덕정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에 대한 사림의 입장은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때문에 조선왕조가 건국한지 100년이 지난 시기까지 사회저변에서부터 왕실에까지 그대로 온전하게 치러지고 있는 수륙재를 강경하게 반대하였던 것이다.

3) 改革案: 時弊 26개조

김일손의 정치·사회 개혁안이 가장 종합적이고 강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時弊 26개조이다. 1495년 성종이 서거하고 그해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 “나는 덕이 없는 몸으로 임금의 큰 업을 이어 받았으나 외로운 상제가 되어 어쩔 바를 모르고 있으니 嘉言·善政을 어떻게 들으며 백성들의 利害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대소 관리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의견을 널리 들으려는 나의 의도를 잘 알고 時政에 관한 의견을 각기 진술하여 봉해 올려라”라는 구언전교를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아무도 글을 봉하는 바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김일손은 직접 26개 조목의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에 대한 상소를 상정하였다. 그 26개의 내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喪制. (상제에 관하여), ② 毋數赦(以信治民). (자주 사면하지 말것), ③ 任土貢, 減進上, 而躬節儉, 以終好尙. (토지 소출의 다과를 참작하여 진상을 삭감하고 몸소 절약하고 검소해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삼갈 것), ④ 略小過・重五服, 爲朝廷立忠厚之風. (작은 허물을 가볍게 다루고 오복을 중히 여겨 조정에 충후한 풍토를 세울 것), ⑤ 復祖宗之法, 而責有司以執法(兼用『元・續六典』). (조정의 법을 복원시켜 해당 관서에게 법을 지키도록 단속 할 것), ⑥ 革提調, 以統都堂. (제조를 혁파하여 도당에 통솔되도록 할 것), ⑦ 侍臣封駁(承政院 皆兼諫官). (시신이 교명을 봉환하고 논박하는 일), ⑧ 擇用宗室之賢者. (종실의 훌륭한 자를 뽑아서 쓸 것), ⑨ 廣史官, 以記善惡. (사관을 더 두어 선악을 기록할 것), ⑩ 久任監司, 時遣御史. (감사를 오래 유임토록 하고 가끔 어사를 보낼 것) ⑪ 擇檢察, 停貿易, 設關以域西民. (검찰을 가려 뽑고 무역을 정지하고 관문을 설치하여 관서백성에게 국경을 밝힐 것), ⑫ 崇孝廉, 以敦敎化. (효렴을 높여서 교화를 도탑게 할 것), ⑬ 尙恬退, 以抑奔競. (염퇴하는 이를 우대하여 분경함을 억제할 것), ⑭ 薦人材十科. (인재 천거를 십과로 할 것), ⑮ 試士用專經. (선비를 시험 보이는 데는 전경을 쓸 것), ⑯ 用士先試民官, 而明勸懲之法. (선비를 쓰는 데는 먼저 민관에 시험하여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을 밝힐 것), ⑰ 疎禁綱, 以裕外官. (금망을 소활하게 하여 외관을 관용할 것), ⑱ 參用鄕薦爲訓導. (향천을 참작해 채용하여 훈도로 삼을 것), ⑲ 革寺田, 以充學田, 革重臺, 以阜殘邑. (사전을 혁파하여 학전에 충당하고 중대를 혁파하여 피폐한 고을을 번성하게 할 것), ⑳ 用文官, 以鎭倭奴. (문관을 채용하여 왜노를 진압 할 것), ㉑ 汰虞候, 而復評事. (우후를 없애고 평사를 회복할 것), ㉒ 責留鄕, 以礪風俗. (유향에게 책임을 지워 풍속을 장려할 것), ㉓ 置稅倉納稅之所. (세창을 두어 납세할 곳을 설치 할 것), ㉔ 革其人業郵卒. (기인을 혁파하여 우졸들이 생업할 수 있도록 할 것), ㉕ 復嫁良之法, 以敷良民, 立奴婢之限, 以簡私訟. (양민에게 출가시키는 법을 회복하여 양민을 족하게 하고 노비의 한계를 세워 사사로운 송사를 간략하게 할 것), ㉖ 復昭陵. (소릉을 회복할 것)[38]

38) 『연산군일기』 권5, 1년 5월 28일 (庚戌).

김일손의 올린 상소의 절목이 26개조나 되는 것으로 봐서 김일손이 그 당시의 時弊를 얼마나 자세히 지적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상소 절목이 많아서 그 성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지만 소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나열해보니 다음 표와 같다.

분 야	소 항 목
1. 유교적 禮制改革案	①, ④, ⑫, ㉒, ㉖
2. 정치사상과 官制改革案	②, ⑤, ⑥, ⑦, ⑨, ⑩, ⑬, ⑰, ⑳, ㉑
3. 試士制와 人材登用制의 改革案	⑧, ⑭, ⑮, ⑯, ⑱
4. 社會·經濟 改革案	③, ⑪, ⑲, ㉓, ㉔, ㉕

그의 개혁안에서 ①, ④, ⑫, ㉒, ㉖조에서는 유교적 이상 정치 실현과 禮制에 부합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은 철학적 탐구보다는 새로운 통치원리로서 덕치·예치에 의한 王道 또는 仁政을 이상으로 하였으며, 군왕 또는 지배층의 심성수양에 의한 덕치·인정의 가능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5세기 후반 성리학 특유의 의리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당시의 성리학은 일종의 실천성리학으로서 도학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왕조교체기의 불사이군파와 세조찬탈 때 충절을 지킨 절의 정신에 접목된 것이며, 도덕적 전통 규범이자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지닌 규범이기도 하였다.

김일손은 ①조에서 喪制에 관하여 거론하며 父王 성종의 喪中에 있는 연산군에게 古制와 國祖儀禮를 절충하여 禮制에 부합되게 하고, 情과 禮에 어긋나지 않게 하며, 모든 계층에게 삼년상을 권장하여 短喪하지 않게 하며, 喪服과 立碑문제도 예문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④조에서는 작은 잘못은 무시하고 五服을 중히 여기며 조정을 위하여 忠厚한 기

풍을 세우기를 주장하였고, ⑫, ㉒조에서는 새로운 향촌질서 수립과 향촌교화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향소와 향교가 새로운 향촌질서수립과 향촌교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효성과 염치를 내세워 교화를 돈독하게 하며 과거 외에 조행과 학덕이 있고 효렴한 자를 발탁, 등용하고 특히 효자를 관직에 제수하게 되면 효자가 속출하게 되고 따라서 교화가 돈독해 진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㉖조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게 폐지된 소릉을 회복하여 한 나라의 강상을 붙들고 인륜을 바로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파가 주장하고 있는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위한 성리학적 예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치사상과 관제개혁안은 ②, ⑤, ⑥, ⑦, ⑨, ⑩, ⑬, ⑰, ⑳, ㉑, ㉔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초기 성리학에 훈도된 사림파의 기수로서 김일손의 정치사상은 군주를 비롯한 위정자들이 수기와 치인 원리를 유교경전에서 체득하여 堯舜시대의 덕치·인정을 실현하는데 그 궁극목표가 있었다. 조선왕조의 中外官制는 태종·세종조를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는데, 세종조의 유교주의에 의한 정치는 세조정권 성립 후 왕권강화책과 훈구파의 권귀화로 인해 변질되어 갔다. 이에 김일손은 세조체제에 대하여 각종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는 정치는 신상필벌의 신의를 지켜야 하며, 세종의 법인 元·續六典과 大典을 겸용하여 情法이 조화되게 집행해야 하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각박하기 보다는 가급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세조의 六曹直啓制와 의정부·6조 관계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세종조에 실시했던 議政府署事制를 부활시키고 상하의 체통을 무시한 提調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 삼사와 같이 봉박도 허용해야 하는데, 언론 삼사는 승정원과는 달리 왕과 떨어져 있어 적시에 간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쉬운데 반해 승정원은 항상 임금가까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 도의 장관인 監司의 임기를 길게 하며 御史를 수시로 파견해야 한다 하였다. 감사는 포괄적인 직무를 유감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식과 덕망이 높고 강직·공정·청렴한 자라야 한다 했다.

그리고 京官 못지않게 외관에 대한 배려와 우대를 건의했는데, 외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가족을 데리고 부임케 함으로써 안정된 외관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⑳조에서는 문관을 등용하여 왜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는 문·무 겸비한 사람을 남북 국경 중진에 배치했던 관례대로 왜적에 대한 대비를 피력하였으며, 倭使·왜인들의 국내정탐행위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㉑조에서는 대외관계와 변방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관인 虞侯보다 문무를 겸비한 評事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㉔조에서는 기인의 폐단을 없애고 향사와 역졸은 지방행정실무와 교통운수를 담당하는 자원이므로 국가가 잘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⑧, ⑭, ⑮, ⑯, ⑱조항을 보면 그의 試士制와 인재등용제의 개혁안이 잘 표출되어 있다. 당시 과거제도는 훈구세력 자제들의 진출로 협잡과 부정행위가 자행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 그리고 과거시험에 명경과보다는 제술과를 선호했기 때문에 경술을 중시하는 사림파의 학문경향과도 위배되어 있었다.

그는 漢나라의 '孝廉' 薦用制와 같이 현재 향촌에서 孝悌를 실행하고 지방자제 교육과 향풍교화에 노력하고 있는 '유일'을 선발, 등용하고 종실 가운데 어진 자를 擇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어디까지나 집권층인 훈구파의 특권의식에 제재를 가하고 사림파의 세력기반을 인재 천거 방법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훈구세력에 대신할 신진사류의 등용을 위하여 10개 과목으로 인재를 널리 추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試士에 전공한 經書를 사용하게 하여 학문을 심화시키고 과거에는 사장보다 경술을 중시하여 신진사류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⑯, ⑰, ⑱조에서는 당시 사림파의 지향점인 향촌사회의 안정과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위해 사림성향의 守令·敎官을 임용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③, ⑪, ⑲, ㉓, ㉕조에는 그의 사회·경제 사상과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貢物과 進上문제, 稅倉건설, 內需司 혁파 등 貢賦와 재정에 관해서 그 개선책을 건의하였고 숭유배불책에 의하여 사원전을 향교의 學田으로 충당할 것과 조선과 명과의 公私貿易에 따른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외교사절과 商人 譯官과의 협잡사례를 거론하며 그 시정과 단속을 건의하였고, 국경선 경비를 강화하여 서북변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노비의 從父法을 실시하여 양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매우 진보적인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39]

이처럼 김일손은 정치·사회개혁안에서 다양한 개혁을 제시하며 당시의 時弊를 정확하게 지적하였으며, 훈구파 주도하의 정국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급진적이며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훈구파에 대한 사림파의 정치적 대응뿐만 아니라 민생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아직 사림파라는 역사적 존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지 않은 당시에 김일손은 훗날 기묘사림에 의해 추진된 체제와 제도개혁, 유교적 예제에 관한 개혁, 치도에 관한 개혁, 관리 임용에 관한 개혁, 세정과 대외관련 개혁의 초석을 닦아 놓았으며, 사림정치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이다.

2. 史草와 戊午士禍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무오사화를 정리하기 이전에 김일손의 사관활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선시대의 사관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사관은 예문관소속 奉敎·待敎·檢閱 벼슬을 말하는 전임사관과 춘추관 소속의 겸임사관으로 나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문관은 군왕의 辭命을 制撰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국가체제 운영에 관한 모든 법이 「경국대전」에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예문관의 관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계	정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정4품	정7품	정8품	정9품
관직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정원	1	1	1	1	1	2	2	4
비고	겸직	겸직	겸직	겸직	겸직			

39) 이수건,「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개혁안」,『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180~222쪽.

대체로 영사는 영의정이 겸하였고,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며, 홍문관의 교리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가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전임사관들은 7품 이하의 봉교·대교·검열의 관직을 가진 8명이었고, 이들이 보통 翰林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예문 응교는 겸직으로 충당했지만 이 자리를 거치는 자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임명된 홍문관 대제학에 오르는 길이었다.

춘추관의 관원은 모두가 겸직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시에는 실록을 편찬할 때 자료가 되는 시정기를 각 관청마다 업무일지식으로 빠짐없이 기록만 해 두었다가 임금이 죽은 후 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이 만들어진 후에야 모이게 된다. 이들이 사관직을 겸했기 때문에 겸직사관이며, 겸춘추라고 불리는 때가 많다. 춘추관의 직제를 경국대전에 의해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춘추관직책	품계	인원	겸춘추
領事	정1품	1	영의정
監事	정1품	2	좌의정, 우의정
知事	정2품	2	6조판서 중 2
同知事	종2품	2	6조판서 중 2
修撰官	정3품	7	6승지, 부제학
編修官	정3-종4품	10	의정부(사인2), 홍문관(직제학1,전한1, 응교1,부응교1), 사헌부(집의1,장령2), 사간원(사간1)
記注官	정5-종5품	13	의정부(검상1), 홍문관(교리2,부교리2), 사헌부(지평2), 6조좌랑(6)
記事官	정6-종9품	15	홍문관(수찬2,부수찬2,박사1,저작1,정자2), 시강원(사서1,설서1), 사간원(정언1), 승정원(주서2), 종부시(주부1), 승문원(박사1)
계	52명		

영의정은 영춘추관사를 겸하고, 좌·우의정은 감춘추관사를 겸한다. 판서 중에서 2사람이 지춘추관사를 겸하고, 참판 중에서 2사람이 동지춘추관사를 겸한다. 수찬관 이상은 당상관들이며, 편수관 이하는 실록을 편찬할 때 초안원고에 해당하는 初草를 작성하는 실무담당자들이다. 기사관은 위 표에서 보이는 15명 외에 예문관소속 한림들도 소속되어 있어 23명이 되며, 조선시대의 사관은 한림 8명과 겸 사관 52명 등 60명 정도가 참

여하고 있다.[40]

이렇듯 조선시대의 사관제도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에 근거한 철저한 관료주의적 구조 속에서 기능하였으며, 김일손의 사관활동도 이러한 관료제 하에서 자신의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무오사화는 1498년(연산 4) 7월에 『성종실록』을 纂修하기 위한 史局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무오사화는 당시의 여러 기록에서 李克墩의 사림파에 대한 반감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그는 사초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행이 김일손에 의해 사초에 기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초의 내용은 그가 세조조에 불경을 잘 외운 덕으로 벼슬을 얻어 전라도 관찰사가 된 것과 세조비 貞熹王后가 喪을 당했을 때 장흥의 관기를 끼고 가까이 한 일, 그리고 뇌물을 받은 일 등이었다. 그는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감정을 품게 되었다.[41]

그런데 그는 일찍부터 김일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486년 김일손이 병오년 문과에 응시했을 때 예조 試官이었던 그는 모든 관리들이 김일손의 문장을 능작으로 여겨 1등에 두려 했으나, 科場 제술의 定式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등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그가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이조낭청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대신이 김일손을 천거했으나, 김일손의 사람됨을 탓하며 홍문관으로 들어갈 것을 핑계로 추천하지 않다가 병조당상이 강력히 추천한 탓에 병조좌랑에 추천했다.[42]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극돈의 아들 李世銓도 이웃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김일손의 형 駿孫에게는 문안을 하면서도 김일손을 찾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험담한 사실도 전해지게 되었다. 결국 김일손과 이극돈 부자간의 감정대립은 훈구파에 대한 김일손의 언론공세로 이어졌고, 그 뒤 실록청이 열렸을 때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에 자

---

40) 박홍갑, 『사관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가람기획, 1999, 43~48쪽.

41) 『연산군일기』 권30, 4년 7월 29일 (癸亥), "馹孫曰 吾史草, 記李克墩當世祖朝, 誦佛經得官, 觀察全羅道, 遭貞熹王后喪, 嬖長興官妓等事. 聞, 克墩欲削此事, 而猶不敢....克墩之怨我明矣."

42) 『연산군일기』 권30, 4년 7월 29일 (癸丑), "李克墩上疏曰... 丙午歲, 臣與尹弼商, 柳輊, 同爲試官, 在禮曹, 馹孫爲擧子. 臣素聞馹孫能文, 而心術泛濫, 恐其代述, 中, 終場製述, 皆令別置月臺上製之. 及考試之日, 有一卷子能作, 而語多不中格. 坐中以能作, 欲置一等, 臣獨曰: "科場製述有程式. 此卷雖能作, 不中程式, 不可置一等. 坐中皆以爲然, 竟置二等. ... 又後 臣爲吏曹判書時, 吏, 兵曹郎廳皆薦爲郎廳, 臣以其人不善, 托以將入弘文館, 不備望. 其後吏曹郎廳更薦之, 臣亦以爲不可. 其後兵曹堂上力薦, 然後始得爲兵曹佐郎."

신의 악행과 함께 세조대의 일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원함을 갚으려 하였던 것이다.

柳子光도 김일손을 비롯한 사림파에 대하여 개인적 감정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경주부윤 柳規의 서자로 甲士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李施愛 난 때 스스로 정벌에 종사했고, 돌아와서 세조에게 발탁되었다. 예종 초에는 南怡를 거짓 고발해서 죽이고 그 공훈으로 武靈君으로 봉해졌다. 유자광은 일찍이 咸陽에서 시를 지어 그 곳 군수에게 청하여 현판해 두었는데 후에 김종직이 군수로 와서 이것을 철거해 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몹시 분개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당시 성종의 신임을 받고 있던 김종직과 친교하였고, 김종직이 죽었을 때는 挽詞를 지어 그를 王通과 韓愈에 비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악감정을 숨기고 있었다.[43]

김일손의 사초로 인해 비행이 드러나게 된 이극돈은 사초의 개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당상인 尹孝孫과 함께 이 사초를 배당받은 成重淹에게 김일손의 사초는 '逐日記事' 하지 않아 어느 날짜에도 넣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싣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사실을 실록찬수에 참가하고 있던 李穆이 알고 만약 김일손의 사초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실록에 기록하겠다고 성중엄에게 위협하는 한편 김일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44]

이극돈의 비행을 기록한 사초를 둘러싸고 김일손측과 이극돈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또 다른 내용을 문제 삼기에 이르렀다. 곧 김일손이 세조대의 宮禁秘事를 사초화했음을 들추어내어 盧思愼·尹弼商·韓致亨 등 훈구대신들과 논의하여 국왕이 사초를 열람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세조당시에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았던 김일손이 어떻게 그 당시의 궁중비사를 기록했는지 밝히려 한다는 구실을 붙였다. 연산군은 사초 전체를 봉입하도록 했으나, 이극돈 등은 군주는 사초를 볼 수 없으나, 종사에 관계된다면 관련된 부분만 취할 수 있다고 하여 김일손의 사초 6조만을 봉입하였다. 이후 사건이 확대되면서 연산군

43) 이병휴,「조선초기의 사림파와 탁영의 현실인식 및 대응」,『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43쪽.

44)『연려실기술』권6, 燕山朝故事本末,「무오사화」.

은 사초 전체를 봉입하도록 했다.[45]

당시 김일손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인 청도로 내려가 있다가 3년상을 마치고 풍병이 생겨 눌러 앉아 있었다. 무오사화가 일어난 1498년 김일손은 정여창을 찾아 함양의 청계정사에 머물러 있다가 사화가 일어나면서 許磐과 더불어 가장 먼저 서울로 압송되었다.[46]김일손은 붙잡혀 오면서 이극돈의 비행을 기록한 사초 때문임을 직감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극돈이 자신의 비행을 은폐하고자 문제의 초점을 그에게 돌리고 일을 일으킨 것으로 짐작하였다.[47]

그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주로 세조의 집권을 부정하여 세조 및 집권공신들의 비행을 기록한 점과 이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반대 측 인물들을 천거하고 도운 내용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궁중의 비사로는 세조가 덕종의 후궁인 權貴人을 불렀으나 권씨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던 일, 덕종의 昭訓 尹氏事, 승려 學祖가 內旨로써 해인사 주지를 자신의 眷屬으로 바꾼 사실, 永應大君夫人 宋氏가 窘長寺의 법회에 갔다가 侍婢가 잠든 후에 학조와 사사로이 통한 사실, 학조가 廣平大君・영응대군의 田民을 많이 획득한 사실 등이 문제가 되었다.

세조의 집권을 부정하고 반대자를 추장한 내용으로는 昭陵복구를 청한 일, 後殿曲을 기록한 점, 皇甫仁과 金宗瑞의 죽음을 死節로 기록한 점, 소릉梓宮을 海濱에 내버려두었다는 것을 기록한 점, 趙文瑔・李塏・崔叔孫이 서로 대화한 내용, 朴彭年의 일을 金淡이 河緯地 집에 가서 위험한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한 점, 李尹仁이 박팽년과 나눈 대화, 세조가 박팽년의 재주를 아껴 살리고자 신숙주를 보내어 권유했으나 따르지 않고 죽음에 나아간 사실, 坦禪이 絞死당한 鄭苯의 시신을 호송했음을 기록한 사실, 남효온과 진사 權綽의 죽음을 卒로 기록한 점, 魯山君의 후궁인 淑儀 권씨의 노비와 田山을 權擥이 취한 점 등이었다.

이러한 추궁에 대해 김일손은 황보인・김종서・정분 등은 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

45) 이병휴, 「사림세력의 진출과 사화」,『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2003, 188쪽.

46) 이종범,「당신의 죽음은 하늘의 시샘이었다:김일손」, 시민문화회의기행-역사인물탐방, 2006.

47)『연산군일기』권30, 4년 7월 12일 (丙午), "義禁府郎廳洪士灝拿金馹孫　繼至, 命義禁府 拿致許磐. 時, 馹孫以戶曹正郎丁母憂, 服闋以風疾居慶尙道淸道郡, 磐以權知承文院副正字在官."

제왕이 마땅히 추장해야 하므로 정분을 정몽주에 비유하고, 황보인과 김종서를 사절로 기록했으며, 세조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므로 허반·최맹한 등에게서 들은 바를 거리낌 없이 기록[48]했다고 하여 세조의 집권을 부당하게 여기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일손의 국문에 적극적이던 유자광은 사초에 실린 또 다른 내용인 『조의제문』을 발견하고 사건을 더욱 확대하였다. 김일손은 사초에서 "노산군의 시신이 숲속에 버려져 거두는 자가 없어서 까마귀밥이 되었는데 한 동자가 밤에 시신을 업고 달아나서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김종직이 지은『조의제문』[49]은 충정이 깃들어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조의제문』은 외견상 秦末 項羽가 楚나라 懷王을 죽인 사실을 두고 조문하여 지은 제문이나, 실은 회왕을 단종에, 항우를 세조에 빗대어 그의 집권을 반인륜적인 것으로 은유한 것이다.[50]『조의제문』은 당시 김종직의 제자들 사이에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김일손 이외의 사관이었던 권오복, 권경유도 사초에다 이를 기록하였다.[51]

『조의제문』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관련자는 김종직의 문인 전체로 확대되었고, 훈구파는 김종직의 문집 속에 있는 또 다른 증거물을 찾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집에서 陶淵明의 述酒에 화답한 시의 서문을 찾아내어 문제로 삼았다. 그 서문은 湯이 아니었다면 劉裕의 簒弑罪와 도연명의 忠憤의 마음이 숨겨질 뻔했다고 하면서, 春秋筆法에 비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조의제문』보다 더 심한 것으로 유유를 세조에 비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훈구파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李穆·任熙載·李黿·表沿沫·洪瀚·李深源등을 차례로 국문하였다.

---

48)『연산군일기』권30, 4년 7월 13일 (丁未), "臣史草世祖朝事, 或聞諸許磐, 或聞諸鄭汝昌, 或聞諸崔孟漢, 李宗準. 此輩皆可信者, 故意謂實而書之. 臣以一介書生, 蒙成宗厚恩, 逮聖上嗣位, 濫叨侍從, 安有反心? 請復昭陵及亂臣等以死節書之者, 皇甫仁, 金宗瑞, 鄭苯無貳心於所事, 帝王所當推奬, 故以苯比前朝鄭夢周. 又書皇甫, 金曰 死之. 世祖以英雄豪傑之主, 掃除昏亂, 成中興之業. 成宗以不世出之主, 持盈守成, 而主上繼成宗之業, 當今之人皆欲立朝, 而恪勤死職, 乃臣之心, 故從仕耳."

49)『연산군일기』권30, 4년 7월 13일 (丁未), "弼商等啓 臣等觀宗直《弔義帝文》, 其義深僻, 非馹孫以寓忠憤之語, 誠難曉然."

50)『연산군일기』권30, 4년 7월 (己酉).

51)『연려실기술』권6, 燕山朝故事本末, 「무오사화」.

사화를 통해 이미 죽은 김종직은 剖棺參試되었으며, 김일손은 권오복·권경유 등과 함께 凌遲處死형을 당하였으며, 이목과 허반은 참수형을 당하고 가산이 몰수되었다. 윤필상 등이 유배시킬 사람을 15일 거리 밖으로 보내라는 연산군의 명을 받아 각각 유배지를 결정했다.

姜謙은 江界에 보내어 종을 삼고, 表沿沫은 慶源으로, 鄭汝昌은 鐘城으로, 姜景敍는 會寧으로, 李守恭은 昌城으로, 鄭希良은 義州로, 洪瀚은 慶興으로 任熙載는 慶城으로, 李摠은 穩城으로, 유정수는 이산으로, 李惟淸은 삭주로, 閔壽福은 귀성으로, 李宗準은 부령으로, 朴漢柱는 벽동으로, 신복의는 위원으로, 成重淹은 인산으로, 박권은 길성으로, 손원로는 명천으로, 李昌胤은 용청으로, 崔溥는 端川으로, 李胄는 珍島로, 金宏弼은 熙川으로, 李黿은 宣川으로, 安彭壽는 철산으로, 趙珩은 북청으로, 이의무는 어천으로 각각 유배를 보냈다. 이극돈 또한 사초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하지만 윤필상 등 많은 훈구대신들은 수많은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았다.[52]

이와 같이 사림세력은 각종 권력과 부를 독점한 훈구세력에 대항하여 대응세력으로 등장하였고, 훈구파의 정치공세에 무오사화라는 큰 변란을 겪으며 한계를 경험한다. 하지만 김일손은 조의제문과 세조대의 宮禁秘事들을 사초에 기록하여 세조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실을 영구 고발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가 바로 공자가 교시한 '春秋大義'의 판별·준행이고, 이러한 역사기록이 '春秋筆法'이다. 김일손은 孔子가 교시한 '춘추필법'의 역사기록을 목숨을 걸고 직필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史草 入錄이 문제가 되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조선왕조의 관료제적 기능 속에서 사관인 김일손이 직필로서 감행함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 수행이었다.

김일손은 기억 속에 묻힐 역사를 복원해 내고자 어린 시절부터 교유하였던 많은 사우들로부터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진실을 담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김일손의 기억투쟁과도 같은 것이다.

---

52) 이병휴, 「사림세력의진출과 사화」,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2003, 190~191쪽.

V. 맺 음 말

15세기 말 부패 타락한 훈구대신들의 비행과 그들의 폐정을 고발하고 사림파의 이상적인 개혁정치를 제시하고자 했던 탁영 김일손은 35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갔다. 그가 23세에 출사한 뒤 35세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가 관직에 재임한 그 짧은 시간동안 그가 남긴 언론활동과 史筆활동으로 인한 파문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고 이후 사림과 훈구라는 조선사회 전반기의 권력구조 내에서의 갈등의 시작이 도래한 것이었다.

여말 선초 영남·기호지방 등 여러 지역에 은거하여 학문을 수양하던 사림은 성조조에 이르러 김종직을 주축으로 김굉필·정여창 등과의 학문적 접촉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응집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파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고, 특히 언관에 보임되는 사림이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구제도와 훈구파 중심의 정국운영에 강력한 비판을 가하게 되었다. 당시 사림파의 공통적인 의식은 언론활동을 통한 개혁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은 김일손과 같은 개혁지향성이 강한 인물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급진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소릉복위 주장이나 조의제문의 사초화 등이 김일손과 남효온 및 이주 등에 의해 추진되었고, 김일손은 사림파의 이와 같은 언론활동의 중심에 서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성종 21년 승정원에 입직하면서 노산군의 입후를 주청하였고, 사관에 입직하여 사초를 닦으면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기록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소를 올려 소릉 복위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김일손은 사간원 헌납에 제수되어 대간으로서의 활동을 펴게 되고, 그를 비롯한 대간과 국왕과의 갈등은 왕의 경연참석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되어 수륙재 행사와 묘제 문제를 통해 확대되었다. 또한 김일손은 사관으로서 세조대의 宮禁秘事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초에 기록,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전달하려 하였다.

요즘 한국사회에 있어서 기억이 화두다. 기억투쟁, 기억전쟁, 기억의 정치, 잃어버린 기억 등 기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역사가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

데올로기라면 기억은 억압되고 잊혀진 진실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억에 대한 호소야 말로 근대의 역사의식을 낳은 비판이성이나 실천이성에 대한 거부로 인식될 수 있겠다. 한국사회에서 기억은 역사의 허증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억은 대안이다. 기억의 부활은 위기의 증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대안이다. 그간 역사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어 온 사적인 기억들이 새롭게 조명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3]

김일손은 사초에 어린 시절부터 교유하였던 생육신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그와 교유하였던 사림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 속에 묻힐 역사를 복원해 낸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역사이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 내고 역사의 정의와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기 위한 기억투쟁을 김일손은 전개한 것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경세가이자 역사가로서 김일손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였고, 그 현실에 강력하게 대처하였던 것이다. 중종조의 신원의 회복은 역사가 그를 재평가하였고, 그를 바라보는 오늘은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역사의 원천이 될 것이다.

53)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15~36쪽.

참고문헌

1. 자료

『濯纓集』

『佔畢齋集』

『秋江集』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國譯濯纓先生文集』, 자계서원간행소, 1994.

『國譯佔畢齋集』, 민족문화추진회, 1999.

2. 저 서

고영진,『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김돈,『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우기,『조선중기 척신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준석,『한국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 Ⅰ・Ⅱ』, 지식산업사, 2005.

박홍갑,『사관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가람기획, 1999.

배종호 외,『한훤당의 생애와 사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96.

부남철,『조선전기 7인의 정치사상』, 사계절출판사, 1996.

심경호,『김시습 평전』, 돌베개, 2003.

유명종,『한국인물유학사』1, 한길사, 1996.

이병도,『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병휴,『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병휴,『조선전기 기호사림파 연구』, 일조각, 1986.

이성무,『조선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2000.

이수건 외,『점필재 김종직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1996.

이수건 외,『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수건,『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이종범,『사림열전2』, 아침이슬, 2007.(근간)
이태진 편,『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003.
이태진,『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이태진,『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전진성,『역사가기억을말하다』,휴머니스트, 2005.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정재경,『정여창 연구』, 집문당, 1988.
최승희,『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최이돈,『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한영우,『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황의동,『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 1995.

3. 논 문

권경열,「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정치적 역할」,『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김범,「조선 성종대의 왕권과 정국운영」,『사총』61, 역사학연구회, 2005.
김범,「조선 연산군대의 왕권과 정국운영」,『대동문화연구』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김기현,「정여창 도학의 특색에 관한 小考」,『동양철학연구』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김용흠,「조선전기 훈구·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회적 함의」,『동방학지』1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김정신,「조선전기 사림의 '공의식'과 군신공치론 - 조광조·이언적의 학

문・정치론」,『학림』21, 2000.

김훈식,「한훤당 김굉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와 그 의미」,『동방학지』 13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2006.

신병주,「김일손 : 결코 흔들림 없는 직필정신」,『선비문화』,남명학연구원, 2004.

윤사순,「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도학사상; 탁영의 도학정신」,『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8.

윤호준,「탁영 김일손의 (관처사묘지명)에 대하여」,『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이병휴,「15世紀後半 ・16世紀初의 社會變動과 金宗直 및 그 門人의 對應」. 『歷史敎育論集』35, 역사교육학회, 2005.

이병휴,「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의 대응」,『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병휴,「조선전기 사림파의 추이 속에서 본 김굉필의 역사적 좌표」,『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2005.

이수건,「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도학사상; 탁영의 정치사회사상과 개혁안」,『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수환,「탁영의 연구자료편-왕조실록초」,『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지경,「鄭汝昌 政治思想의 再評價」,『동양정치사상사』제3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최영성,「一蠹 鄭汝昌의 生涯와 學問歷程 -諸家記述을 중심으로」,『東洋哲學硏究』제3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최이돈, 「성종대 사림의 훈구정치 비판과 새정치 모색」,『한국문화』1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허권수,「점필재 김종직의 선도와 강우학파」,『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5.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48166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최정동	한문: 崔晶棟	영문: choi jung dong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 1차 부영아파트 103-504				
연락처	011-9667-0236	E-MAIL: cjd35nn@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탁영 김일손의 사우와 정치활동 영문 : A study on the colleagues and political activities of tacyeong kim il-s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년 6월 일

저작자: 최 정 동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